

어머니가 닦은 복전 (하)

하용이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장)



그림 · 문병성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다니시며 불공을 올리셨다. 그때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절에 다니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안 것은 몇 십 년이 지난 뒤였다.

가세가 기울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별다른 내색 없이 절에 다니시며 불공을 올렸다. 가족들에게는 평소와 다를없는 모습이었으며, 오히려 신앙심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부산 동광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덕수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던 나는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북한산 국영사에 금강경 보시를 하시는 등 아들 입시를 위해 정성을 쏟으셨다.

그런 어머니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나는 원하는 중학교에 무난히 입학하게 됐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그 때 그렇게 사찰에 보시를 할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은 신앙심으로 부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신보다 더 불심깊은 불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자식들을 부처님 제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외상매출금 담보로 받아두셨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는 새 각오로 다시 부신으로 내려가셨다.

그 이후 나는 서울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되었고, 어머니는 관악산 연주암을 밟아 도록 오르내리시며 중학교 입시 때처럼 아들을 위해 정성을 쏟으셨다.

한 번 발원을 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나가는 어머니의 신앙심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영사와 연주암에 오르내리셨던 어머니의 신심과 정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고등학교 이후 지금까지 신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과정에서 본분을 잃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신심 덕분이다.

회장 등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자리를 거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보람은 청담·성철·석주 스님 등 큰스님들과 양주동·서문각·이기영·박종홍 박사와 서정주·고은 시인 등 당시 내로라하는 석학들을 가까이 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88년 시작된 한국은행불교회와의 인연도 20년이 되었다. 열떨결에 간사직을 맡게 되면서 매주 열리는 금요일회에 때때로 큰 법사스님을 모시는 일로 늘 고민을 했다. 그렇게 17년을 간사직을 맡으며 수많은 스님들을 모셨는데, 모시는 스님들마다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 법에 대한 갈증도 끝이 없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는 마음이 생겼고,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야간반에 다니면서 불교공부에 매달렸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했지만 공부한 덕에 조계종 포교사 자격도 얻게 됐고, 봉은사 청정공덕회 부회장이 되면서 봉은사에서 수행도 이어졌다.

공부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천행'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부처님 법을 사회에 회향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2005년 한국은행 연수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한국은행 자원봉사회 회장으로 맡게 됐다. 은행에서 가까운 회현동 쪽방동네 이웃들을 매달 찾아가 함께 했으며, 무료급식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소년의 집 어린이들과 놀이공원을 나들이 하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비로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머리로만 부처님 법을 이해해왔던 것이 후회됐다.

작년 1월 여러 도반들의 요청으로 한국은행 불교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도 실천행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 그래서 12월에 열린 한국은행 불교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올해 건학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에 노스님 치료를 위한 후원기금을 헌정하고, 그동안 한국은행 불교회를 위해 훌륭한 가르침을 내려주신 스님들의 군법당과 대웅전 등의 불사에도 적극 동참했다.

영광스럽고 즐거운 이런 모든 인연들은 모두 다 어머니의 불심과 삼보의 가르침이 이루어진 것이다. 홍콩에 와서는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닦아 놓으신 복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처님 법을 따라야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오늘도 아침 해와 함께 태평산 사자정에 오른다. (끝)

어머니 신앙심은 내 인생의 밑거름 역할 열심히 공부한 덕에 포교사 자격증 취득도 은혜·가피 보답하기 위해 봉사활동 열심히

은혜·가피 보답하기 위해 봉사활동 열심히

내가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경기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툼비니'라는 재가신행단체의 고등학생부에 가입하면서부터다. 고3때에는 대학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침마다 삼귀의를 꼭 열반씩 외고, 설 때나 틈날 때나, 공부로 지칠 때에도 삼귀의를 외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마치고 경영학과 학사편입시험과 대학원 경영학과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1년 동안 꼬박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금강경을 독송했다.

물론 툼비니 대학생부와 법도의 법회(매주 토요일)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런 중간 중간에 나타낸 마음이 들기도 했고, 공부에 별다른 진척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신앙심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다.

툼비니와의 인연은 이렇게 해서 벌써 40년이 되어간다. 툼비니 고등부와 대학부 설립부장, 고등부 향토찬양대회 지도사, 법도

를한 가르침을 주셨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 법에 대한 갈증도 끝이 없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는 마음이 생겼고,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야간반에 다니면서 불교공부에 매달렸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했지만 공부한 덕에 조계종 포교사 자격도 얻게 됐고, 봉은사 청정공덕회 부회장이 되면서 봉은사에서 수행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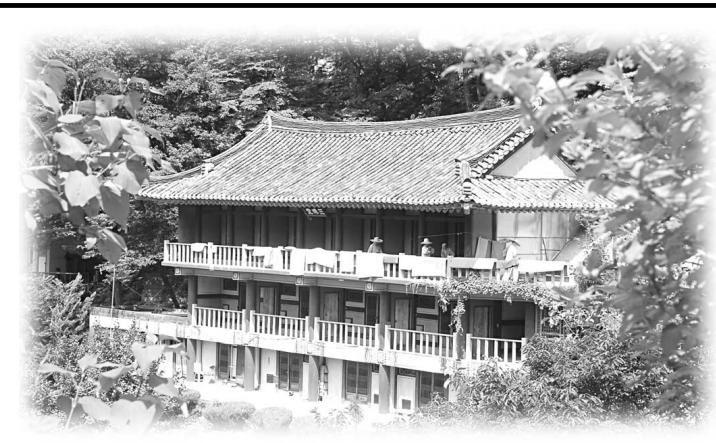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자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菩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기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간헐된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아니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승광사 총림 방장 보성 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계룡산 감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 ◆ 법회안내
- ▷ 보살계 수계법회: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 접수마감: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탈종공고

- 사찰명: 지장사
- 주 지: 해주(오용득)
- 주 소: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곡리 523-1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불기 2550년 8월 23일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 신경통·오십견·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광한의원 윤광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환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양대부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르신 분

윤광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의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응답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를 향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도종 [민속농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풍난방을 생각하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m ²	668원/m ²	1250원/m ²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원)	588kw	1650kw	124m	1569kw	124m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15,000원	182,000원
단기차수	100	155	202	267	395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5평 난방(11월~12월 기준)
(연료비 50~75%절감)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등유
108,000	152,000	198,000	262,000	387,000	445,000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방, 식당, 사무실 등

■ 제품: 정통(이)국립로리규제 제품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